

수산물·국밥거리 특화... 변신하는 남광주시장

'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선정 점포환경 개선·상인 역량강화 문화전당·예술의거리 등 연계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은 요즘 활기가 돈다. 정부의 '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뒤 상인들 스스로 시장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가 하면, 지역 특색을 담은 콘텐츠 개발에도 공을 쏟고 있다.

"시장도 변해야 살아남는다"는 공감대가 상인들 사이에 형성되면서 의식과 판매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특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400여명의 상인들은 결의대회를 열어 달랠 시장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도 참여해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대표적 지역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달라진 남광주시장으로 오세요-남광주시장 상인회(회장 손승기)는 오는 4일 오후 1시부터 시장 주차장 광장 일대에서 '3대 서비스 혁신 실천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결의대회는 남광주시장이 지난 7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인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데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시장의 변화상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은 정부가 전통시장의 기초체력을 키워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남광주시장은 전국 33개 시장 중 하나로 선정됐다. 남광주시장은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 3억원 이내(국비 50%·지방비 50%)를 지원받아 '지역 문화와 소통하는 광주 대표 명소시장'으로 키우기 위한 비전을 내걸고 ▲3대 서비스 혁신 ▲2대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3대 서비스 혁신사업의 경우 ▲편리한 지불 결제 시스템과 온라인 홈페이지



광주의 수산물 대표시장인 남광주시장 전경. 남광주시장은 최근 정부의 '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인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서비스 혁신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개선 ▲상품 가격과 원산지는 분명하게 표시하기 및 AS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공동 앞치마 제작을 비롯한 위생 관리법부터 상품 진열 등 위생·정결 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전통시장은 불편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편리한 지불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형마트와 경쟁할 특화된 콘텐츠와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대표적 도심 관광 코스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지역의 맛과 멋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 전통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상인들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수산물거리와 국밥 거리를 조성하고 점포 환경을 소비자들이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고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역량 강화 사업은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안전 관리가 골자로, 전체 251개 점포 상인들 243명의 70% 이상이 상인회에 가입하는 등 상인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케팅과 진점교육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열어 상인들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응급 구호 장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 수준을 높여 손님들이 '믿고 찾아오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용 앱과 지역은행과 연계한 신용카드 개발, 청년상인 육성, 시장 스토리텔링 발굴 등을 추진하는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남광주시장은 이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마련한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설정해 문화관광형 시장(2019~2020년)을 거쳐 오는 2021년 이후 지역 거점시장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남광주시장 특화첫걸음시장육성사업단 장복수 단장은 "상인들 스스로 의식을 바꾸고 특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더 많은 소비자들이 남광주시장을 찾아올 수 있다"면서 "편리한 시장, 볼거리와 먹거리가 다양한 시장, 믿고 찾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하고 저렴한 상품 믿고 사세요-남광주시장이 오는 4일 여는 '남광주시장 가을축제'는 달랠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면

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남광주시장은 축제 기간 중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을 열고 흥을 돋운다는 계획이다. 남광주시장은 지난달 28일 개막한 국내 최대 관광·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참여, 손님으로 북적대는 시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동구도 남광주시장이 지역 대표 전통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이다. 시장과 인접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공동 예술의 거리, 동명동 카페촌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인택 동구청장은 "광주의 수산물 대표시장인 남광주시장이 도심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남광주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美, 연방기금금리 0.25% 인상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

외인 수급·대북관련주 주목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25~26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연방기금금리를 2.00~2.25%로 0.25% 인상했다. 금리 2.25%는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FOMC 투표원 9명 만장일치로 인상했다.

관심을 모았던 9월 점도표에서 2018년 12월 0.25% 추가 금리인상 및 2019년 3차례, 2020년 1차례 금리인상 전망이 유지됐다. 특히 올해 4차례 금리인상 위원수가 지난 6월 8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고 내년도 4차례 금리인상 전망 FOMC 위원 수도 지난 6월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미국 연방기금금리가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파일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안화적'이라는 문구 삭제가 정책변화 신호가 아니라고 밝히며 연준의 긴축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의 '비둘기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되었고 금리인상 FOMC 위원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내용면에서는 '때때'적 성향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금리 인상국면에서 국내증시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는 미국시장 대비 부진했고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된 6월 이후 무역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증시는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현 국면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한계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말에서 상반기와 같이 연준이 가파르게 내년도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증시에 부담이 가중되겠지만 미국의 장기기준금리(중간금리)는 3.0%로 추가금리인상폭에도 한계가 있고 인상속도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선진증시와 신흥국증시의 차별화는 점진적으로 완화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연후 기간 동안 미중 무역협상 일정이 취소되고 미중 상호 관세 부과가 시행되었으나 시장의 큰 충격은 없었다. 오히려 올해 부진했던 유로존과 일본증시는 상승했고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큰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증시도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이 2019년 MSCI-신흥국(EM) 지수의 중국 비중을 5%에서 20%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만한 소식으로 상승했다.

10월 국내증시는 외국인수급과 대북이슈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14일 이후 외국인 코스피시장에서 1조 8024억원을 순매수했다. 원달러환율이 1130원선을 저항으로 추가상승이 제한되자 외국인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기이던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시즌에 돌입하는데, 반도체 고점권 속에서 삼성전자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외국인의 긍정적 시각 변화속에 수급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유엔총회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호외 외무상의 회동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북한을 방문하기로 확정되었다.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 진전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목적이므로 북한이 비핵화 검증에 대한 사절단수용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이 합의된다면 북한경제 해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북한관련주의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에도 별재료로 순환매양상을 보이는 제약바이오와 대북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추가로 중국국경절 소비관련주와 최근 거래대금 증가로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증권주에 주목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직접 수확하니 더 꿀맛~"

광주농협, 주말농부 체험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지난 29일 나주시 세지면 화탑마을에서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이날 도시민 30여명은 화탑마을에서 나주 대표 농산물인 배를 수확해 먹어보고 농촌 들레길을 걷는 등 농촌을 체험했다.

도시가족 농촌체험은 초등학생을 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촌마을을 방문해 계절마다 각기 다른 영농, 수확체험과 농산물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도시민들은 농촌을 체험할 수 있고 농촌지역



농업인들은 농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나NH여행홈페이지(www.nhtour.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스마트 플랫폼 '농집' 농가 생산·수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0월 1일부터 국내 수출농가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농집'(NongZip)을 출시해 보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농집은 기존 수기형 영농일지를 모바일로 옮겨온 것으로 농가별 농약살포 내역, 생산·수출량 등 신선농산물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과정의 이력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농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교육과 사용 대행을 지원해줄 '농집 코디네이터'를 전국 단지내 지정 운영해 실시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급매합니다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문의. 010-3605-5000

펜션·가든 부지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